

바람직한 절 불사는?

남원 실상사에서 성찰·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가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월 28일 실상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안상수 교수(홍익대 미대)의 사회로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건축과)는 "과거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특성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하나 되도록 터를 잡아 수행을 위한 청정도량으로 삼았고, 건물은 전체의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 빈 공간마저도 전체와 어울리게 건축했다"고 전

제하고 "주변의 모든 것과 공생·공존·공영하는 건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오늘날 건축은 터와 빈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졌고, 건물 규모가 기존 건물보다 월등하게 커졌다"고 비판하고 "불평등사회,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합한 사찰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대안으로 현대사회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은 경내를 벗어난 새로운 터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재연 스님은 "출가대중과 재가자들이 함께 수행·교육·전법·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보전과 문화 활동의 공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전통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불교계 불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상사 불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실상사 작은 학교 이경재 교장은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와 귀족인, 지역인과 화해와 나눔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2월 28일 실상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불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대안이 제시됐다.

스님의 사례발표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나선 도법 스님은 "사찰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부대중 공동체를 통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시대정신에 맞는 불사로 진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지난 10년간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의 규모와 시대정신이 부합하는 불사를 결정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실상사 주지 재연 스님은 "오늘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을 모아 앞으로 2-3차례의 세미나를 더 개최하여 2009년 10월까지 중장불사 계획을 완성하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등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조동제 전북지사장

“팔만대장경 연구·전승 온 힘”

해인사, 연구원·인쇄문화공방 개원 등 적극 지원

합천 해인사(주지 현승)가 세계기독교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의 연구와 전승사업에 적극 나섰다. 해인사는 2월 20일 열린 팔만대장경연구위원회(위원장 황석, 이하 연구위원을 개인한데 이어, 판각·인쇄문화회를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공방도 개원한다. 연구원은 그동안 해인사가 운영해오던 해인사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에서 진행해 오던 제원조사 및 전산화 사업에 더해 학술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펼칠 예정이다. ‘팔만대장경대장경 종합센터’를 표방하는 연구원은 대장경이 조성된 시대적 배경과 사상, 문화는 물론 목판인쇄문화, 보존 및 전승 등 대장경을 둘러싼 총체적인 학문분야를 아울러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개원 첫 사업으로 오는 6월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2001년부터 진행해 온 보존연구원의 전산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원의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술연구에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공방도 문을 연다. 해인사 아랫마을인 합천읍 가야면에 건립되는 공방은 인경 및 제책, 치목, 판각 등 목판인쇄물의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인쇄 체험도 해 볼 수 있게 꾸며진다. 해인사는 “연구원이 대장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방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교인쇄문화의 소중함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인사는 휴경지에 나무와 담나무 등 팔만대장경판 제작에 쓰인 수목을 식재하는 등 대장경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軍불교 더 힘찬 행보를”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8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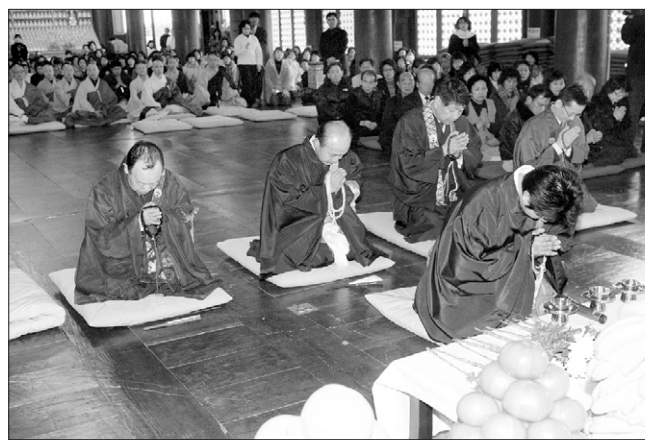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병관, 육군 대장)가 2월 22일 대전 계룡대 호국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하고 국군불교 총신도회와 계룡대 통합신도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김병관 회장의 ‘반야심경과 깨달음’ 강의와 육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이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임종빈 육군사관학교교장과 이봉원 육군본부군수령모부장, 이치의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이 수상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아 더욱 정진하는 조직적인 역동적 모습을 보여준 만큼 군 불교에 대한 사부대중

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15만 군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군 장병들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불총 비전21’ 추진 경과 보고와 군불자 결의 선포, 계룡대 호국사 합창단의 축하 등의 순서로 법회가 진행됐다. 군불총 비전 21은 군 내의 수행 조직과 활동을 혁신해 군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려는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군불총은 앞으로 전군 차원의 신도 조직화를 이뤘고 지역별 수행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교류활동을 통한 친목 강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철 충청지사장

“조국에서 왕생극락 하소서”

봉은사,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안치·천도재 봉행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봉행됐다. 봉은사는 50여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4구의 유해를 2월 26일 봉은사에 안치하고, 27일 위령 및 천도재를 열어 넋을 위로했다. 이번 유해 반환은 도노하라 요시히코 스님(일본 일승사 주지)이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유해 송환 사업을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도노하라 스님은 지난 2005년에는 유족을 일본으로 초청해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도 했다. 2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천도제에는 유해 환국에 도움을 준 일본 스님 30여 명과 유가족 20여 명,



2월 27일 봉은사 범영당에서 일본측 스님들이 강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동포 여러분의 유해를 늦게나마 고국에 봉안하게 됐다”며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도노하라 스님을 비롯한 사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교계가 양국 교류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은 종교가 사회발전과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해는 28일 천안 국립묘지의 동산으로 옮겨져 봉안됐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익산 미륵사 복원사업 시동

市·문화재연구소 연구 협약

국내 최대사찰인 익산 미륵사 복원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월 20일 익산시청에서 이한수 시장을 비롯해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용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륵사 복원 고증연구 협약체결식이 열렸다. 익산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11억여원(국비 8억여원)을 들여 미륵사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 로드맵 작성을 통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확

보와 심층적인 고증연구로 복원 및 정비에 대한 방향성 설정, 복원 추진을 위한 단계별 주요사업 내용 및 목표표시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제무왕(600~641년)때 창건된 국내 최대사찰인 미륵사는 목조탑의 양식을 이어받은 국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최대 규모인 미륵사지 9층 석탑(국보 제11호)이 있다. 이한수 시장은 이번 체결식에서 “천년고도 익산의 상징인 미륵사가 복원되면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대구회관 개원 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은 2월 26일 불교대구회관 만불보전 집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구회관은 1988년부터 대구지역 스님 및 불자들이 건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2003년 3월 대구 남구에 회관을 개관한 것에 이어 이날 만불보전 개원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법혜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구 지역 불자들의 서원이 깃든 만불보전이 지역 포교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동화사 주지 무공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 태고종 대구총무원장 경묵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순법현 대구지사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기약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치리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정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정각원 토요일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3월 8일부터)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일반인 및 동국가족

*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초심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3	8(토)	불교의 이해와 신행	종호 스님	정각원장
	15(토)	불교와 경제	우승택	삼성증권 Fn Honors 호텔신라지점장
	22(토)	관음사양의 성립과 실천	법산 스님	전 불교대학원장
	29(토)	우뭇사니 수행의 이해	마가 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4	5(토)	생활법회	해담 스님	광주 김해사 회주
	12(토)	반야사상의 성립과 전개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신체조와 심신수련	인도 스님	양산 금강사 주지
	26(토)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5	3(토)	생활법회	영배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10(토)	내 안의 부처(여래장사상)	종호 스님	정각원장
	17(토)	인도불교의 역사	김미숙	불교대학 강사
	24(토)	진언수행의 이해	해정 정사	수원 유가심안당 주교
6	31(토)	불교와 문학	최승열	동국대학교 부총장
	7(토)	생활법회	심산 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14(토)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21(토)	성지순례	윤영수	가화민화박물관장
7	28(토)	법화/열반 사상의 이해	지창규	불교대학 교수
	5(토)	생활법회	현각 스님	원주 성불사 주지
	12(토)	중관사상의 구조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이미터 신앙의 이해	신용 스님	음성 팔운사 주지
8	26(토)	불교와 경영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9(토)	생활법회	정안 스님	조계종 총회의원
	16(토)	법구경의 가르침	김재경	청보리회 지도법사
	23(토)	티벳불교의 역사	민성주	경강대학교 교수
30(토)	불교음악의 이해	남화 스님	태고종 문화부장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7-2 T.02)2260-3016, F.02)2260-3744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